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Wan Hai plots \$1bn newbuilding haul for neo-panamax tonnage

대만의 선사 Wan Hai가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 계획을 공식화 했다고 보도됨. Wan Hai 이사회는 13,000TEU급 컨테이너선 최대 9척을 10.4억달러에 발주하기로 결정함. 현재 현대중공업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됨. 주로 아주역내 운송 서비스를 담당하던 Wan Hai는 이번 발주를 통해 장거리 운송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 한국, 2월 글로벌 수주 1위

Clarksons에 따르면, 한국이 2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82만CGT(92척) 중 156만CGT(43척)을 수주하며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됨. 한국은 VLCC 등 중대형 유조선 12척 전량을 수주했으며, 12,000TEU급 이상의 컨테이너선은 17척 중 13척을 수주하는 등 대형선 중심으로 수주량을 확대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Yangzijiang, 피더 컨테이너선 8척 수주

Yangzijiang Shipbuilding이 중국 SITC International Holdings로부터 2,600TEU급 4척, 1,800TEU급 4척 등 피더 컨테이너선 8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총 계약금액은 1.92억달러라고 보도됨. Yangzijiang의 야드는 2023년 말까지 슬롯이 찼고, 중형급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건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 Qatar Petroleum teams up to look at new LNG carrier designs

Qatar Petroleum과 Qatargas, 그리고 4개의 에너지 메이저 업체들이 새로운 중/대형 LNG선의 디자인을 위해 협업한다고 보도됨. LNT Marine이 기술제공을 하며 ABS(미국선급)이 관리하고, 한편 중국의 Shanghai Waigaoqiao Shipbuilding도 참여한다고 보도됨. LNT Marine이 제공하는 A type의 LNG화물창 시스템은 현재 45,000CBM급 운반선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 알려짐. (TradeWinds)

## 홍아해운 인수 여부 금명간 결판

홍아해운의 잠재적 인수자인 장금상선 컨소시엄이 이르면 이번 주 홍아해운 인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2월 중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출자전환을 통한 홍아해운 인수를 포기하면서 채권 변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며, 채권상환 및 신주 매입 관련 제안을 담은 수정안을 장금상선에 전달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 Boa Offshore hopeful of recovery in 2022 but markets still 'fragile'

노르웨이의 선주 Boa Offshore사가 2022년까지 해양시추서비스 시장의 회복을 전망했다고 보도됨. 최근 개선된 시황이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팬데믹 이후의 수요 회복에 따른 추세적인 회복세는 가능하다고 내다봄. 2020년 3~4월 Oil 수요는 20% 가량 급감했고, 현재 Oil 수요는 어느정도 회복했으나 여전히 2019년 수준의 7~8% 정도 하회하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